

청동기시대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이 형 원
한신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1. 송국리문화 중심취락의 양상 (유병록 선생님)

송국리문화의 중심취락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여 송국리유적은 소비중심(전문)취락(김장석 2008)으로, 진주 대평리유적은 대규모 경작지(밭)을 배후로 한 생산중심취락(윤호필 2013)으로 분류(인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국리유적 소비중심취락설은 송국리유적에서 반경 10km 내에 분포하는 유적 중에서 논산 원북리, 공주 안영리 새터, 산의리유적 등을 모두 저장전문유적으로 분류하고, 이 저장전문유적들은 송국리유적에 잉여를 공급하는 것이 주 기능이었다고 보는 견해(김장석 2008)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인지? 토론자는 송국리단계의 중심취락이라면 대규모 저장공간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부탁한다.

2. 야요이시대 전기의 저장혈 밀집 공간의 해석 (田崎博之 선생님)

야요이시대 전기의 환호 취락은 직경 40-60m의 소규모 환호와 직경 100m 이상되는 대규모 환호로 나뉘며, 전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환호(쿠즈카와, 미즈오카 나가오, 미츠사와 기타 나가오유적)는 저장혈만을 감싸고 있으며 내부에 주거지는 없다고 하였다. 야요이시대 초기에 잘 보이지 않던 저장혈이 전기가 되면 농경문화가 더욱 발달하면서 곡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공간이 활발하게 조영되는 것은 한반도의 송국리문화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야요이시대 전기에 저장혈만을 위한 소규모 환호유적이나 그 밖의 저장혈 집중 분포유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조사범위가 저장혈 집중 분포구역에 한정된다면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취락구조와 사회조직의 측면에서 하나의 완결된 취락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 저장공간과 멀지 않은 곳에 주거공간이 존재하며, 저장혈의 식료는 그것을 조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해석이 가능한

지 궁금하다.(예를 들어 위 1번 질의에서 언급한 송국리문화의 저장전문유적들은 상위의 중심취락인 소비전문유적에 잉여를 공급한다는 일부 연구자의 견해 등)

3. 청동기시대 농경문화의 중심이 되는 송국리문화 형성 관련 (안재호 선생님)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초기(돌대문토기단계)에서 후기(점토대토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중국 요령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의 송국리 문화에 대해서는 왜래기원설(주민이주설)과 남한 재지발생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재지설의 주창자이면서 현재도 그것을 이끌고 있는 안재호 선생님은 송국리식토기의 성립과정에 중국 산둥지역의 선진 문화(타날기법을 비롯하여 토기요의 군집화, 도량형과 관련된 석추, 독립동지주지상건물 포함)가 개입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령 관창리유적의 타날토기는 산둥인이 주도하여 만들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관창리유적 등 중서부 해안지역의 타날기법이 중국 산둥반도의 제도술이라는 견해(深澤芳樹·李弘鍾 2004)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만약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검증된다면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 즉 송국리문화 물질자료와 관련된 산둥반도의 자료 제시가 없는 점은 그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부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둥반도에서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의 직접 이동(황해 횡단)을 상정하는지, 아니면 요령지역과 서북한 지역의 연안항로를 따라서 이동한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하다.

4. 송국리문화의 소비단위 : 세대단위 취사·식사 Vs

세대공동체단위 공동 취사·식사 (유병록, 田崎博之 선생님)

송국리문화의 소비단위는 송국리식주거지에서 노지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 및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 평상노지설과 타원형수혈노지설(회혈노) 등 주거 내 노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은 주거 1동에 거주하는 세대별로 취사와 식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쪽은 2-3동으로 구성된 세대공동체 성원들이 가옥 밖의 야외 노를 이용해 공동의 소비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송국리식주거지에 대해서는 유병록 선생님께, 일본의 송국리식주거지에 대해서는 田崎博之 선생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야요이문화 성립 : 죠훈인 주체설 Vs 도해인(도래인) 주체설

(田崎博之, 안재호 선생님)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 측면에서 볼 때 해묵은 쟁점이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한다.

한일고고학계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농경문화가 일본열도 야요이문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관개시설을 갖춘 수전도작으로 대표되는 생업경제적 측면을 비롯해서 송국리식주거지나 환호취락, 지석묘를 포함한 묘제, 자비용기나 저장용기로 사용된 토기, 석제 또는 목제 농공구나 마제석검·석촉과 같은 무장적 성격의 유물 등에 이르기까지 물질정신문화를 포괄하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고 있다. 이와 같은 야요이문화의 성립에 대해서 죠훈인의 선택적 수용에 의해서 야요이문화가 성립했다는 繩文人 주체설과 渡海人(일본측의 입장에서는 渡來人)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도해인(도래인) 주체설로 나뉘어 있다.

새로운 문화의 형성에 대해 일방적인 관계 보다는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이 필요한데, 현재 발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다. 물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청동기 시대 한일 농경문화의 교류”를 생각한다면 간단하게라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한 바 있는 田崎博之(또는 山崎純男), 안재호(또는 유병록) 선생님께서 질의한다.